



지난달 20일 오후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30라운드 전북현대와 상주 상무와의 경기. 전북현대 이동국이 공을 쫓아내고 있다.

K리그, 이제부터 우승·잔류 경쟁

14일부터 상·하위 스플릿 라운드 진행

33차례의 협투를 통해 우열반 구분을 마친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이 14일부터 재개되는 스플릿 라운드를 통해 본격적인 우승, 잔류 경쟁에 나선다.

올 시즌 스플릿 라운드는 전북·제주·울산·수원·서울·강원의 상위 스플릿과 포항·전남·상주·인천·대구·광주의 하위 스플릿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등반에 이름을 올린 6개팀은 우승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확보를 두고 마지막 5경기를 치르게 된다.

최대 관심사인 우승에 가장 유력한 이는 전북 현대다.

전북은 지난 8일 2위 제주 유나이티드전 1-0 승리로 추격자들에 6점 앞선 단독 선두를 질주 중이다.

2012년 스플릿 제도가 도입된 이래 스플릿 라운드 직전 1위를 달리던 팀이 우승을 놓친 경우는 지난 시즌 한

차례에 불과하다.

FC서울이 시즌 내내 선두를 지키던 전북을 극적으로 제친 것이 최초이자 마지막 뒤집기다.

전북의 심판 매수로 인한 승점 9점 삭감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이 외에는 모두 기존 선두팀이 트로피를 가져갔다.

2013년 포항 포항스틸러스는 스플릿 라운드 돌입 이후 울산 현대에 1위를 내줬으나 최종전 승리로 패권을 차지했다.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은 마지막까지 뜨거울 전망이다.

전북이 사실상 한 자리를 확보한 가운데 울산과 제주(이상 승점 50)를 수월 삼성과 FC서울(이상 승점 53)이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K리그에서는 상위 3개팀만 챔피언스리그 진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만일 FA컵 우승팀이 상위 3위 안에 포함되면 4위팀에도 혜택이 돌아간다.

열등반으로 밀려난 6개팀의 유일한 목표는 잔류다.

최하위 광주FC(승점 28)는 경쟁팀들에 승점 10점이나 뒤져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남은 5경기에서 지금까지 거둔 4승 이상의 승수를 쌓지 못한다면 자동 강등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K리그 챌린지(2부리그) 2위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11위팀의 행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7위 포항 스틸러스(승점 40)와 11위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33)의 격차가 7점에 불과해 라운드를 거듭할 때마다 순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생존왕 본능에 다시 한 번 기대를 걸고 있다.

12팀 체제가 자리 잡은 2014년 이후 인천은 한 번도 상위스플릿에 올라온 적이 없었지만, 강등 또한 당하지 않았다.

2014년 이후 하위스플릿을 벗어난 적도, 강등된 적도 없는 팀은 인천이 유일하다.

/뉴시스

'암벽 여제' 김자인, 리드 월드컵 5차 대회 은메달

'암벽 여제' 김자인(29·스피어코리아)이 2017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리드(Lead) 월드컵 6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자인은 8일(한국시간) 중국 쓰저우 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결승에서 +45홀드를 잡아 2위에 올랐다.

우승은 완능한 인야 간브렛(슬로베니아)에게 돌아갔다.

7일 벌어진 예선에서 두 개의 루트를 완능하며 공동 1위로 준결승에 진출한 김자인은 준결승에서 +41홀드를 기록, 3위로 결승에 올랐다.

김자인은 결승에서 노련하게 33~34번째 홀드를 통과하며 완능을 눈앞에 뒀지만, 아쉽게 마지막 홀드를 잡지 못해 간브렛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시즌 월드컵 랭킹 2위를 달리고 있는 김자인은 14일부터 중국 사면에서 벌어지는 월드컵 7차 대회에 출전한다.

/뉴시스

MLB 보스턴·양키스, 디비전시리즈 3차전 '기사회생'

보스턴은 9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5전 3선승제) 3차전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15안타를 집중한 타선에 힘입어 10-3으로 완승을 거뒀다.

디비전시리즈 1, 2차전을 모두 패했던 보스턴은 이날 타선이 대폭발해 비장 끝에서 탈출했다.

보스턴 선발 덕 피스타가 1%이닝 3실점으로 난조를 보였다.

3연패의 악몽이 예상되는 순간 타선이 폭발했다.

2회말 1점을 만회한 보스턴은 3회 라파엘 디베스의 투런 홈런 등으로 3점을 뺏아 4-3으로 가볍게 역전에 성

공했다.

보스턴은 7회 무사 만루에서 라미레스의 2타점 2루타와 디베스의 1타점 적시타, 재키 브래들리의 3점포로 6점을 뺏아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디베스는 결승 투런 홈런을 포함해 3타수 2안타 3타점을 기록했고, 라미레스는 4타수 4안타 3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보스턴의 세 번째 투수 데이빗 프라이스는 40닝 4피안타 무실점 호투해 승리를 이끌었다.

뉴욕 양키스는 뉴욕주 브롱스의 양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 클라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다나카 마사히로의 70닝 무실점 역투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1, 2차전을 연달아 패한 양키스는 3차전을 잡아 기사회생했다.

승리의 주역은 다나카였다.

다나카는 70닝 동안 삼진 7개를 잡아내며 3피안타 1볼넷 무실점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마무리 아롤디스 체프먼은 1%이닝 2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 투구로 승리를 지켜냈다.

양키스 그렉 버드는 7회말 친금같은 솔로 홈런을 터뜨려 승리에 일조했다.

클라블랜드는 9회초 1사 1,2루 찬스를 잡았지만, 후속 타선의 불발로 무릎을 꿇었다.

/뉴시스

케이블 채널 tvN, 지상파 드라마와 본격 경쟁

예능·드라마 프로그램 대폭 재편성

케이블 채널 tvN이 예능·드라마 프로그램에 대폭 재편성한다.

월화·수목 드라마가 지상파 드라마와 직접 경쟁에 나서면서 예능 프로그램이 드라마 앞뒤에 포진한다.

tvN은 9월 첫 방송되는 월화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를 오후 9시30분에 편성했다.

이에 따라 월요일 예능인 '수업은 바꿔라 시즌2'은 오후 8시10분 '침침'은 10시50분에 편성됐다.

화요일 예능인 '집밥 백선생 시즌2'와 '엄마는 연예인도 각각 오후 8시10분, 10시50분에 방송된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MBC '20세기 소년 소녀', KBS 2TV '마녀의 법정', SBS '사람의 온도와 경쟁하게

다.

새 수목드라마 '부임동 복수자들도' 오후 9시30분에 전파를 타게 되면서 MBC '병원선',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KBS 2TV '2017 KBS 드라마 스페셜'과 시청률을 놓고 싸운다.

그러면서 수요일·목요일 예능인 '달바트로스'와 '어쩌다 어른'은 오후 8시10분에, '수요미식회'와 '수상한 가수'는 오후 10시50분에 시청자를 만난다. 또 월·목 밤 12시20분에는 병단공개2017, '프리한19', '현장토크쇼 택시', '인생술집'이 각각 방송된다.

/뉴시스

케이블 채널 tvN 새 월화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범죄도시' 역주행... 남한산성 누르고 개봉 7새 만에 1위

배우 마동석이 주연한 영화 '범죄도시'(감독 강윤성)가 '남한산성'을 주저 앉히고 개봉 7새 만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9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범죄도시시는 전날 1314개관에서 4543회 상영, 42만5287명(누적 관객수 180만 6781명)을 끌어모아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이날 매출액은 35억7200만원, 매출액 점유율은 34.5%였다.

'범죄도시'는 지난 3일 개봉했지만, '남한산성'과 '킹스맨:골든 서클'에 밀려 박스오피스 3위로 출발했다.

이후 영화는 입소문을 타며 흥행에 가속도를 붙여 6일에는 '킹스맨:골든 서클'을 제치고 2위에 올랐고, 8일에는

'남한산성'마저 제압했다.

흥행세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는 9일 오전 8시 현재 예매관객수 5만3609명(예매 점유율 26.4%)으로 예매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남한산성' 5만2248명).

'범죄도시'는 형사와 조선희 조지훈 액션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조선희 범죄조직 흑룡과가 가리봉동 일대를 장악해 나가자 강태보다 더 강태같은 형사 '마석도'가 흑룡과 두목 '장현'을 잡기 위해서 나서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았다.

마동석이 형사 마석도를, 윤계상이 장현을 연기했다. 이밖에도 조재윤·



최귀하·임형준 등이 출연했다. 연출은 신에 강윤성 감독이 맡았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